

잡아함 114. 지고경

날짜: 9월 10th, 2024

출처: <http://www.dhamma.kr/wp/?p=17743>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마구라산에 계시었다. 때에 라다라는 시자 비구가 있었다. 그 때에 집을 나온 많은 외도들은 존자 라다에게 가서 서로 인사한 뒤에 한 쪽에 앉아 라다에게 물었다.

“너는 무슨 까닭으로 집을 나와 사문 고오타마 밑에서 범행을 닦는가.”

라다는 대답하였다.

“나는 괴로움을 알기 위해 집을 나와 세존 밑에서 범행을 닦는다.”

때에 모든 외도들은 라다의 말을 듣고 마음이 불쾌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꾸짖고 떠나갔다.

그 때에 라다는 해질녘에 선정에서 깨어나 부처님께 나아가 부처님 발에 머리를 조아리고 한 쪽에 물러 앉아 위의 일을 자세히 여쭙었다.

“세존이시여, 아까 제가 한 말은 세존을 비방하지나 않았나이까. 과연 다른 사람이 와서 힐난하고 꾸짖을 때에 지지나 않겠나이까. 말답게 말하지 않고 법답게 말하지 않았으며 법과 법을 따르는 말이 아니지 않나이까.”

부처님께서 라다에게 말씀하시었다.

“너는 진실을 말하였다. 여래를 헐지도 않았으며 다른 사람이 와서 힐난하고 꾸짖을 때에도 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말답게 말하였고 법답게 말하였으며 법과 법을 따르는 말이니라. 왜 그러냐 하면, 물질은 괴로움이다. 그 괴로움을 알기 위해 집을 나와 여래 밑에서 범행을 닦는 것이요, 느낌·생각·지어감·의식은 괴로움이다. 그것들의 괴로움을 알기 위해 집을 나와 여래 밑에서 범행을 닦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라다 비구는 부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여 받들어 행하였다.

본 문서는 dhamma.kr에서 수집한 내용입니다.